

# S 스포츠

14 전남매일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 광주대 U리그 6경기 무패행진

### 이종민·김명순 연속골 동강대 제압

광주대학교가 지난 14일 광주과학기술원 축구장에서 열린 2019 U리그 6관역 13라운드 동강대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광주대는 이날 승리로 6경기 무패 행진(6승2무1패)을 이어가며 리그 3위를 유지했다.

초반부터 동강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경기를 주도해가던 광주대는 이종민(2년)이 전반 42분 머리로 골을 넣으며 기선을 제압했다.

연일 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종민은 6경기 6골(1경기당 1골)로 무서운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종민은 현재 리그에서 득점 3위를 달리고 있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광주대는 후반에 들어서자 더욱 강하게 동강대를 몰아쳤다. 후반 11분에는 김명순(1년)이 오른발로 강력한 중거리 슈트를 날려 두 번째 득점을 올렸다.

전반기를 유종의 미로 장식한 광주대는 기분 좋게 휴식을 맞이하게 됐다. 다음경기는 9월6일 목포에서 초당대와 붙는다. /최진화 기자

## 2019아시아펜싱선수권 개인전

### 광주서구청 강영미 에페 동메달

펜싱 여자 에페 간판 강영미(34·광주 서구청)가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강영미는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9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 최인정과 나란히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중국의 저우밍에게 금메달, 린성이 은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 개인전 6종목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여자 플뢰레에서는 전희숙(서울시청)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사브르에서는 윤지수(서울시청)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김지연(익산시청)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펜싱 남자 사브르에서는 오상욱(성남시청)이 금메달을, 하한솔(성남시청)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진화 기자

## 동강대 정영웅 투런·최원영 만루포

### U리그 한려대에 10-0 6회 콜드승

동강대학교가 대학야구 U리그에서 최원영의 만루홈런과 정영웅의 투런포를 앞세워 2경기 연속 콜드승을 거뒀다.

동강대는 지난 14일 순천팔마구장에서 끝난 '2019 KUSF(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U리그' 후반기 D조 한려대와 4차전에서 10-0 6회 콜드 게임으로 2연승을 달렸다.

동강대는 지난 7일 제한대와 3차전에서 12-4회 콜드게임에 이어 한려대와 4차전에서도 초반부터 타선이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일찌감치 경기를 끝냈다.

동강대는 2-0으로 앞선 2회말 선두타자 볼넷과 상대 수비실책, 몸에 맞는 볼 등으로 주자를 모았고 2사 만루에서 서우신의 내야안타와 최원영의 만루포가 터지며 5점을 추가했다.

4회 1점을 더 보낸 동강대는 8-0으로 앞선 6회말, 5회초 수비 때 중견수로 교체된 정영웅이 무사 1루에서 콜드게임을 확정짓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동강대는 오는 21일 호원대와 5차전에서 3연승에 도전한다. /조기철 기자



# ‘슛돌이’ 이강인 차세대 간판으로

2골 4도움 한국 남자 첫 FIFA 대회 ‘골든볼’  
FIFA 주관 대회 첫 등장 국제무대 기량 입증  
2살 어린 막내 ‘즐기는 축구’로 승리의 발판

한국의 분투 끝 준우승으로 막을 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이 남긴 최고의 수확은 단연 ‘막내형’ 이강인(18·발렌시아)의 재발견이다.

어린 시절 방송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리며 ‘슛돌이’라는 수식어로 익숙했던 그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 선수로 존재감을 굳혔다.

일찌감치 스페인에서 기량을 쌓아 온 이강인은 지난해 한국 선수 최연소(17세 253일) 유럽 프로축구 공식경기 데뷔 등 1군 팀의 부름을 받기 시작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형들보다 2살 어린 대표팀의 ‘막내’로 참가한 이번 대회는 그 가능성을 제대로 증명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U-20 월드컵을 앞두고 이강인은 FIFA가 선정하는 ‘주목할 선수’ 10명에도 들 만큼 국내에서는 물론 대회 전체적으로도 관심을 끌었다.

처음으로 FIFA 주관 대회에 등장하며 국제무대에서 기량을 펼칠 기회를 맞은 그는 세계적인 유망주들과 견줘도 손색없는 활약을 펼치며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FIFA 남자 대회 결승에 진출하는 데 주역이 됐다.

공격형 미드필더, 스트라이커 등 특정 포지션에 얽매지 않는 그는 뛰어난 개인기를 뽐내며 한국의 공격을 이끌었다.

특히 날카로운 왼발 킥이 여러 번 빛을 발하며 승리의 발판을 닦고, 볼 간수와 탈압박, 볼 배급 등에서도 빼어난 기량을 보였다.

에콰도르와의 준결승전 때는 프리킥 기회 때 상대 전원이 채 정비되기 전 다른 곳을 보는 척하더니 낮고 빠른 기습 패스를 보내 최준(연세대)의 결승골을 끌어내는 등 명장면도

남겼다. 최우수선수상(MVP) 격인 골든볼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한 그는 16일(한국시간) 우크라이나와의 결승전에선 전반 5분 김세운(대전)이 얻어낸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대회 두 번째 득점을 올렸다.

한국이 이 골을 지키지 못하고 1-3으로 역전패하며 목표한 우승은 이루지 못했으나 이번 대회 내내 2골 4도움으로 맹활약한 이강인은 결국 골든볼을 거머쥐며 세계적인 유망주로 이름 석 자를 확실히 알렸다.

기량에선 ‘유럽파’다운 모습을 보이며 동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도 생활에선 형들에게 스텝없이 다가가 친근감을 표현하는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하며 ‘막내형’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대회 내내 팀을 대표하는 스타로 주목받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법도 했지만, 특유의 담담함과 여유로운 모습으로 정정용호의 ‘즐기는 축구’에 앞장서며 한국의 차세대 간판으로 우뚝 섰다.

언론과 마주하는 기회마다 ‘경기에 뛰지 않는 형들’을 챙기고, 16강 한일전을 앞두고는 응원하는 팬들에게 “애국가를 크게 불러달라”고 공개 요청을 하는 등 ‘막내형 리더십’도 빛났다.

지난 시즌 소속팀 발렌시아에서 출전 기회를 많이 잡지 못한 그는 이번 대회 선전과 골든볼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이 뛠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불췌했다. 이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레반테, 네덜란드의 아약스 암스테르담, PSV 에인트호번 등 유수 클럽이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

성인 국가대표팀에선 평가전 엔트리에 이름만 올리고 데뷔전을 치르지 못했으나 유럽 프로 무대에서 꾸준한 활약이 이어진다면 ‘벤투호’ 경기에서 그의 모습을 볼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 20살 월드컵 주역 K리그 달군다

### 광주FC 엄원상·안산 황태현 등 15명 K리그1·2 소속팀 복귀 생존경쟁 돌입

한국 청소년 축구 대표팀은 세계무대에 도전장을 내밀 때면 ‘어게인(Again) 1983’을 외쳤다. 4강은 FIFA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1983년 멕시코 대회 때 달성한 우리나라의 이 대회 최고 성적이었다.

정정용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 감독도 2019 폴란드 U-20 월드컵 개막 전에 ‘어게인 1983’을 외치며 4강 신화 재현을 욕심냈다.

하지만 U-20 대표팀이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으로 한국 축구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청소년축구는 ‘어게인 2019’를 외치게 됐다.

2017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회에는 백승호(지로나), 이승우(엘라스 베로나) 등 뛰어난 이름값을 가진 유망주들이 대거 나섰지만 이번 대회에 출전한 대표팀은 ‘막내’ 이강인(발렌시아)이 사실상 전력의 핵심을 맡을 정도로 기대감이

떨어졌다. 대표팀 선수 21명 가운데 15명이 K리그였고, 대학생도 2명이나 됐다. 심지어 K리그에서 데뷔 전조차 치르지 못한 선수들도 있었다. 네임밸류가 무겁지 않아 정정용호 선수들은 ‘끝까지 세대’라는 수식어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표팀은 ‘원팀’으로 기적을 만들었다. 조별리그 1차전 포르투갈에서 패했을 때만 해도 기대감이 높지 않았지만 이후 선수들은 ‘제갈용’ 정정용 감독의 전술과 팀워크로 죽음의 조에서 생존했다. 그리고 16강, 8강, 4강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처음으로 FIFA 주관대회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U-20대표팀은 이제 한국축구의 황금세대가 돼 올림픽에 나설 U-23대표팀과 A대표팀으로의 성장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이번 대표팀 21명중 15명이나 되는 K리그들은 소속팀으로 복귀, 더 큰 미래를 위해 K리그 생존경쟁에 뛰어들다.

조영욱(FC서울), 전세진(수원 삼성), 박지민(수원 삼성), 이재익(강원), 박태준(성남), 김주

성(서울), 고재현(대구), 이광연(강원), 이규혁(제주) 등 9명은 K리그1, 오세훈(아산), 이지솔(대전), 김세운(대전), 엄원상(광주), 황태현(안산), 이상준(부산) 등 6명은 K리그2 소속이다.

K리그1에서 뛰는 선수들은 조영욱(서울)과 전세진(수원)을 빼면 데뷔전조차 치르지 못한 선수도 많다.

7경기 동안 주전 골키퍼를 맡아 ‘거미손’의 별명을 얻은 이광연(강원)을 비롯해 FC서울의 수비수 김주성과 수원 삼성의 골키퍼 박지민은 아직 프로 데뷔전을 치르지 못했다.

K리그2에서는 피파리는 주전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황태현(안산)이나 이상준(부산), 이지솔(대전) 등도 소속팀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펼칠 태세다.

이번 월드컵에서 ‘특급 조커’로 자리매김한 엄원상은 소속팀인 광주FC에서 4경기밖에 뛰지 못했다. 광주에서도 조커 역할을 맡아온 만큼 본격적인 팀내 경쟁에 뛰어들어 존재감을 입증할 차례다. /최진화 기자

## 아쉬운 폴란드 여정 마무리 정정용 감독 “선수들 고맙다”



아쉬운 정정용 감독을 눈앞에 두고 폴란드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한 정정용 감독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 감독이 긴 여정을 함께한 제자들과의 이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선수들이 한국축구에서 5년, 10년 안에 최고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정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전술적인 준비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서도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돌아 가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감독과의 일문일답.

-소감은.

▲ 낮은 시간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선수가 하나가 돼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훨씬 더 피날레가 멋있었을 뻔했다. 하지만 전술적으로 우리가 준비했던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결과가 좋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다. 우리 선수들이 긴 여정에서 고생 많이 했다. 소속팀으로 돌아가게 되면 분명히 단언컨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너무 고맙다.

-미리 고비 넘지 못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 우승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 상대 수비를 깨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빌드업을 위해 김경민을 투입해 패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준비했다. 전반전에 이른 시간에 득점하고 나서 선수들이 내려서길래 조금 더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체력이나 컨디션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후반전에 다시 리스크가 있음에도 미드필더에서 수직 우위를 뒤서 전방위 압박을 하게 해 경기력이 훨씬 좋았다. 하지만 실점 상황에서 상대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실수로 인해 안타깝게 실점하다보니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 제가 전반에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준우승임에도 선수들이 낙담한 모습이던데 리커룸에서 어떤 말을 했었나.

▲ 준비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했다. 끝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은 발전시키면 된다. 슬퍼하거나 그릴 일이 아니다. 춤은 못 찾지만 사진도 찍고 했다. 우리 선수들이 여기까지 올랐던 것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하다. 마무리에서 욕에 티가 있었지만 지도자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태프, 기술연구그룹(TSG) 등 많이 도와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우리 선수들 새역사 썼다. 한국축구에 어떤 의미 있는지. 스무살인데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스스로 어떻게 준비하고 경기에 임하면 되는지에 대한 충분히 알게 된 것은 큰 자산이다. 앞으로도 2년 마다 열리는 이 대회를 통해 더 발전시키면 좀 더 격차가 좁혀지게 될 것이다. 준우승했지만 아직 우승이라는 도전 기회가 남아 있다. 또다시 후배들이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함께 한 이 선수들과 이제 마지막 경기를 치렀는데.

▲ 내게 아주 특별한 선수들이다. 2년 전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 대회 결승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제 마지막 훈련을 하면서 선수들이 고맙다고 얘기했다. 물론 또다시 만날 수 있다.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고 싶다. /연합뉴스

▲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스스로 어떻게 준비하고 경기에 임하면 되는지에 대한 충분히 알게 된 것은 큰 자산이다. 앞으로도 2년 마다 열리는 이 대회를 통해 더 발전시키면 좀 더 격차가 좁혀지게 될 것이다. 준우승했지만 아직 우승이라는 도전 기회가 남아 있다. 또다시 후배들이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함께 한 이 선수들과 이제 마지막 경기를 치렀는데.

▲ 내게 아주 특별한 선수들이다. 2년 전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 대회 결승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제 마지막 훈련을 하면서 선수들이 고맙다고 얘기했다. 물론 또다시 만날 수 있다.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고 싶다. /연합뉴스

## 축구협회 준우승 태극전사에 포상금

2019년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남자축구 사상 FIFA 주관대회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일군 리틀 태극전사들이 포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6일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오른 우리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게 협회의 방침”이라며 “기존에 FIFA 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한 포상금 전례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포상금 지급 기본안을 만든 뒤 차기 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액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포상금 규모는 2010년 한국축구 사상 처음으로 FIFA 주관대회에서 우승한 17세 이하(U-17) 여자 대표팀과 같은 해 U-20 여자월드컵 3위를 차지한 U-20 여자대표팀이 기준선이다.

당시 축구협회는 U-17 여자대표팀에 총 4억 9,0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번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 성적을 낸 U-20 대표팀 선수들에게는 우승과 3위를 차지한 두 여자팀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16일 새벽(한국시간) 폴란드 우치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팀 선수들이 목에 메달을 걸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